

기독교 사상이 라오서(老舍) 문학에 미친 영향

신진호*

목 차

- I. 머리말
- II. 라오서와 기독교의 만남
- III. 라오서가 이해한 기독교와 영(靈)의 문학
- IV. 라오서의 문학창작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 V. 맺음말

한글초록

1900년대 초 역사적 변혁기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나라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처방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에서 그 해법을 구하는 이도 있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는 이도 있었다. 또한 교육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시도도 있었다. 반면에 라오서(老舍)는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그 처방을 구하고자 하였다. 라오서가 젊은 시절 접했던 기독교 사상이 그의 문학, 즉 문학이론과 문학창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먼저 그의 생애를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객원조교수

중심으로 그가 기독교에 접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가 발표했던 글들 가운데 기독교적 관념이 잘 드러난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가 발표했던 수많은 작품 가운데 기독교적 관점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묘성기(猫城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기를 버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문학 활동에 종사하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생을 마쳤던 작가의 진정한 애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시 중국이 직면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라오서의 문제의식은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되지 않았고, 그 효과 또한 미미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 중국 수립 이후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그의 문제의식은 모든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 포말처럼 사라진 듯 했지만 그의 창작 곳곳에는 미미하나마 그 빛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老舍, 기독교, 성경, 猫城記, 애국

I. 머리말

20세기 초 미증유의 역사적 변혁기를 맞아 중국의 지식인들은 나라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처방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에서 그 해법을 구하는 이도 있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는 이도 있었다. 또한 교육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시도도 있었다. 반면에 라오서(老舍)는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그 처방을 구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라오서가 젊은 시절 접했던 기독교 사상이 그의 문학, 즉 문학이론과 문학창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생

애를 중심으로 그가 기독교에 접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가 발표했던 글들 가운데 기독교적 관념이 잘 드러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그가 발표했던 수많은 작품 가운데 기독교적 관점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묘성기(猫城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기를 버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문학 활동에 종사하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생을 마쳤던 작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또 하나의 프리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라오서와 기독교의 만남

중국에서 기독교는 14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기독교는 중국에서 왕조의 흥망성쇠만큼이나 수용과 거부의 운명을 겪었다. 20세기 들어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중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크리스천의 숫자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¹⁾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00여년에 걸친 봉건시대를 끝내고 수립된 중화민국이 발표한 『임시약법(臨時約法)』에서 “중화민국의 인민은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종족, 계급, 종교의 구별이 없다”고 천명하고 그에 따라 인민들은 인신, 거주, 재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공포함으로써 기독교의 합법적 지위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²⁾

1) 1910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수는 5144명, 중국인 전도인은 7701, 자립교회당은 2955개, 기독교인은 약 161075명이었다가, 1920년에는 선교사 수가 6204명, 중국인 전도인 12967명, 자립교회당이 4727개, 전도처가 약 6480여개, 기독교인 수가 366534명으로 증가하였다. 김학관, 2005, 『중국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p.103, p.144.

2) 김학관, 앞의 책, p.112.

이와는 반대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났다. 1922년 베이징 칭화(淸華) 대학에서 세계기독교청년연합 모임이 개최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으로 무장한 기독교 반대 세력이 반기독교동맹을 상하이에서 결성하였다. 이후 1927년까지 이들을 중심으로 반기독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과학과 민주를 기치로 내건 신문화진영에서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괴리현상을 보이던 기독교의 현지 토착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라오서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하였다.³⁾

당초 라오서가 기독교에 접촉하기 전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불교적 가르침이었다. 그 중심에는 ‘종월대사(宗月大師)’라는 인물이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라오서는 그의 도움으로 10살에 되어서야 진학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라오서가 ‘류다수(劉大叔)’로 부르던 그가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빈한해지면서 출가하여 법명을 ‘종월(宗月)’로 하였다. 출가 전 종월은 라오서와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고 죽 공장을 여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라오서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고, 라오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인민들을 위한 자선활동에 매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월대사에 대해 라오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 분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일생동안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지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라오서가 만주족 출신의 빈한한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만주족 출신이라는 족쇄는 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시 5.4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가지 족쇄는 가난이었다. 吳永平, 2003, 「老舍与基督教“本色化”运动」,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제23卷 第3期, p.40.

못했을 것이고, 그 분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즐거움이나 의미를 영원히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 분은 성불하셨을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분의 마음 씀씀이와 언행이 부처와 가깝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나는 그 분의 호의를 받았고, 지금 나는 그 분이 정말 성불하셨기를 바란다. 또 그 분이 불심으로 나를 선함으로 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바로 35년 전에 그 분이 나를 사숙으로 끌어주셨던 것처럼 말이다.⁴⁾

이렇듯 라오서가 가장 먼저 접촉했고,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불교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는 불교를 선택하지 않았다. 동한 말기에 중국에 전해져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는 봉건왕조의 종식에 따라 그 경제적 기초가 붕괴되었고, 급속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 극심한 혼란기 속에서 지식인들의 관심은 강대한 조국 건설에 모아져 있었고, 불교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설파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지식인들의 관심은 다른 구원책을 찾고 있었다. 천두슈(陳獨秀)는 「기독교와 중국인」이라는 글을 써서 주장하기를 “예수의 숭고하고 위대한 인격과 뜨거운 감정을 우리들의 피에 배양하여, 우리를 냉혹과 암흑과 구렁텅이 속의 타락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⁵⁾ 또한 후스(胡適)는 1922년에 발표한 「기독교와 중국」에서 기독교를 윤리 교훈, 신학체계, 미신 성분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4) 没有他,我也许一辈子也不会入学读书。没有他,我也许永远也想不起帮助别人有什么乐趣与意义。他是不是真的成了佛我不知道。但是,我的确相信他的居心与言行是与佛相近似的。我在精神上物质上都受过他的好处,现在我的确愿意他真的成了佛,并且盼望他以佛心引领我向善,正像三十五年前,他拉着我去入私塾那样。老舍,1999,『老舍全集』,北京:人民文学出版社,第14卷,p.199.

5) 徐愛紅,2005,『老舍的文學創作與基督教』,青島大學 碩士學位論文,p.8.

있다. 그는 신학체계와 미신 성분은 취할 필요가 없고, 윤리 교훈은 받아들일 만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관점은 문화적 계몽의 도구 수준이었다. 라오서 역시 큰 범주에서 대동소이하였다.

학업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후 라오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였다. 경사공립 제17고등소학 겸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라오서는 1920년 9월에 경사 학무국의 장학사로 임명되었다. 업무도 힘들지 않았고 보수는 교장 시절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자연스럽게 안락한 생활에 젖어들었고, 음주와 흡연, 마작에 손을 대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파폐해져 갔고, 급기야 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게다가 모친이 정해진 혼인도 거부하면서 일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로 여겼던 모친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라오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얻게 되었다. 이에 라오서는 한가롭고 후한 보수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결국 라오서는 1922년 여름에 장학사를 사직하게 된다. 그 무렵에 라오서는 베이징 강와(缸瓦)시 런던 기독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어 베이징 강와시 교회가 운영하던 영어 야학에 참가하였다. 이곳에서 야학 운영 책임자인 바오광린(寶廣林)을 알게 되는데, 그는 영국 런던대학 신학원을 졸업하고 막 귀국한 인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오서는 바오광린이 조직한 ‘솔진회(率真會)’와 ‘청년봉사부’에 가입하여 자선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⁶⁾

장학사를 사직한 라오서는 텐진(天津) 난카이(南開)중학의 국어교

6) 張桂興·鄭金麗, 2000, 「老舍與基督教的不懈之緣」,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2期, p.62.

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당시 난카이중학의 교장은 1909년에 세례를 받고 입교한 크리스천으로, 텐진 청년회 이사장 겸 천진기독교교회 회당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주도하에 난카이중학의 기독교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라오서도 그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였다. 활동의 일환으로 라오서는 10월에 학내에서 열린 쌍십절(雙十節) 경축대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다.

나는 ‘쌍십(雙十)을 두 개의 십자가로 해석하고 싶다. 민주정치를 위하여, 국민의 공동 복리를 위하여, 우리들 모두는 두 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은 단지 한 개만 졌지만 말이다. 옛날의 악습과 적폐, 그리고 아편처럼 독이 있는 문학을 파괴하고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희생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희생을 준비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⁷⁾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라오서가 기독교의 희생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1922년 12월에 라오서는 바오광린이 쓴 「기독교의 대동주의(大同主義)」라는 글을 번역하였다. 이 글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동정, 복종, 인내 등의 가르침과 현실세계에서 대동으로 가는 길 등을 언급한 글이다. 이 글을 번역했다는 것은 라오서가 기독교 사상에 대해 상당 부분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23년 9월에 텐진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라오서는 베이징 와강

7) 我愿将双十解释作两个十字架。为了民主政治，为了国民的共同福利，我们每个人须负起两个十字架——耶稣只负起一个。为破坏、铲除旧的恶习、积弊，与像大烟瘾那样有毒的文学，我们预备牺牲，负起一架十字架。同时，因为创造新的社会与文化，我们也必须准备牺牲，再负起一架十字架。甘海嵐，1989，『老舍年譜』，北京：書目文獻出版社，p.11.

시 중화기독교회 주일학교 총 간사를 맡으면서 아동 주일학교와 예배에 관련된 글을 연이어 발표한다. 1924년 7월에 라오서는 바오광린과 와강시 런던회의 회원이자 런던대학 동방학원 교수로서 당시 연징(燕京)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이원쓰(易文思)의 추천을 받아 영국 런던대학 동방신학원의 중국어 강사로 부임한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 있었다면 나는 소설을 쓰지 못했을 것”⁸⁾이라고 스스로 밝힐 만큼 라오서의 문학 활동에 있어서 영국 체류 경험은 중요하다. 영국 체류 기간 동안 라오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소설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가로서의 내공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⁹⁾ 이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라오서로 하여금 문학가의 길을 가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영국 체류는 1920년대 초기 활발하게 벌였던 라오서의 기독교적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영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몇 개월을 체류한 뒤 귀국한 라오서는 1931년 7월에 후제칭(胡潔靑)과 결혼하는데, 결혼 전에 후제칭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오서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있다. 항일전쟁 기간 중에 라오서는 충칭(重慶)에서 『『성경』과 문학』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였는데, 강연에서 그는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역설하면서, 구약의 전반부 다섯 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1944년 4월 15일 중화전국문예계향적협회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여 문예와 사회풍기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라오서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8) 劉寧, 2016, 「淺析英國生活對老舍早期創作的影響」, 『課程教育研究』, 5월, p.237.

9) 당시 라오서의 소설 탐독에 대해 영어를 빨리 익히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라오서 자신이 『我怎樣寫『老張的哲學』』에서 밝힌 바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장거리여행을 하지 못하고 독서에 빠졌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우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 새로 태어난 자를 영접하는 예수 생전의 요한이 되어야 한다.……문학가는 사회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죽어도 변절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한다. 예수가 세상에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듯, 문예가는 오늘날 문예의 황무지 위에서 후손을 위해 큰길을 열기 위하여 크게 소리치는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¹⁰⁾

이상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라오서가 펼친 여러 가지 주장이나 활동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기독교 입교 목적이 독실한 종교적 신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여타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중국 지식인들의 우환의식, 말하자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밝은 미래에 대한 갈망 차원에서 그 해법의 일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불문하고 그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그의 문예론과 창작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된다.

III. 라오서가 이해한 기독교와 영(靈)의 문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오서는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그의 이해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아동의 주일학과 아동의 예배 실시에 관한 논의(兒童主日學與兒童禮拜設施之商榷)」라는 글을 통해 그는 교회학교에서의 아동교육이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교리에 입각한

10) 我们要做耶稣生前的约翰, 把道路铺平, 迎接新生者。……文学家应该誓死不变节, 为转移风气努力。耶稣未出世前即有施洗的约翰, 文艺家应该拿出在今日文艺的荒原上大声疾呼的精神, 为后代子孙开一条大道。張文森, 2011, 『老舍與基督教』,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p.11.

교조적인 설교를 지양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동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지 말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게 하며 속죄의 기도를 하지 말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냐 하면 아동이 주일학교에 다니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동 개개인의 생활 상황과 절차를 무시하고 고정된 문자와 논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교육은 아동의 자연적인 천성과 심신의 발달 법칙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전수해야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직접 머리를 써서 사고하게 해야 하고 직접 손을 움직여 창작하게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사상과 도덕을 갖추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문학에 관한 라오서의 글 가운데 그의 기독교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글로 그가 1940년 9월에 쓴 「영(靈)의 문학과 불교」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본래 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한 강연 원고로서 ‘영의 문학’에 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라오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대의 문학에서는 단지 인간세상 밖의 일은 모두 버리고 인간세상의 일만 말하면서 그 밖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러니 쓰는 범위가 매우 협소해진다. 단테 이후로 문인들의 안목은 해방이 되었고, 인간세상의 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영혼까지 말하게 되었고, 위로는 천국을, 아래로는 지옥을 말하게 되었다. 창작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유럽문화에 있어서 이 점은 정말 가장 커다란 공헌이다. 영혼을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고 바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중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양문학은 영의 생활을 떠날 수 없고 이 영의 문학은 유럽 문예의

11) 馬新亞, 2008, 『基督教與老舍』,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p.18.

강력한 전통이 되었다.¹²⁾

서양문학에서 ‘영의 문학’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색채와 의미를 띤 문학작품을 가리킨다. 라오서가 이해한 ‘영’은 육체와 상대적인 개념의 ‘영혼’을 가리킨다. 라오서에게 있어 ‘영’적인 요구는 양심, 도덕, 신앙의 요구인 것이다. 다시 말해 ‘영의 문학’은 ‘도덕의 문학’인 것이다. 라오서의 눈에 중국 국민은 현실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너머의 존재를 무시하는 까닭에 현실적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원칙과 양심을 저버리고 도덕을 우습게 여기며 양심을 내팽개치는 일을 저지른다. 영적 인격과 영적인 생활을 저버린 그들은 결국 비극으로 결말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 라오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중국은 불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인민들이 영적 문학의 영양분이 부족한 까닭에 그 결과 중국에 악인들이 외국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외국보다 좀 많은 편이다. 모두들 사람됨에 치중하고 있지만 사람됨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고, 그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편의만을 따지며 비열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더러운 독직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 중국사회의 모든 계층에는 이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 단계에서 국가와 인민의 복리를 돌아

12) 在古代的文学裏，只谈到人世间的事情，舍了人世间以外，是不谈其他的，这所写的范围非常狭小。到了但丁以後，文人眼光放开了，不但谈人世间事，而且谈到人世间以外的‘靈魂’，上说天堂，下说地狱，写作的范围扩大了。这一点，对欧洲文化，实在是个最大的贡献，因为说到‘靈魂’，自然使人知所恐惧，知所希求。从中世纪一直到今日，西洋文学却离不开靈的生活，这灵的文學就成了欧洲文艺强有力的传统。『靈的文學與佛教』，老舍，1995，《老舍文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第14卷，p.444.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듯 비열하고 더러운 국민과 국가가 강성해질 수 있겠는가?¹³⁾

라오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 문학의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단테의 『신곡』과 같은 작품이 중국문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 결과 국민들의 영혼이 나쁜 방향으로 물들어졌다는 진단이다. 결국 라오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중국은 지금 단테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영적인 문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양심의 문을 열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영적인 생활을 하게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라오서는 단테 매니아였다. 라오서는 단테의 『신곡』이 서양문학에 있어서 영적 문학의 새로운 정원을 개척하였고, 그런 까닭에 『신곡』은 위대하다고 평하였다. 나아가 『신곡』은 모든 시대 사람들의 죄악과 미덕, 하나님의 판단과 미덕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¹⁵⁾

이처럼 라오서가 『신곡』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곡』의 줄거리는 다음

13) 中国可以说是佛教国, 因为人民缺乏灵的文学底滋养, 结果我国的坏人并不比外国少, 甚至比外国还要多些大家都着重于做人, 然而着重于做人的人, 却有很多简直成了没有灵魂的人, 叫他吃一兒亏都不肯, 专门想讨便宜, 普遍的卑鄙无耻, 普遍的齷齪贪污, 中国社会的每阶层 無不充满了这种气氛. 这个抗战胜利努力建国的现阶段, 不顾国家人民福利专为自私自利大发其财的大有人在. 像这样卑污齷齪的国民, 国家会强盛吗? 『靈의文学與佛教』, 老舍, 1995, 『老舍文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第14卷, pp.445-446.

14) 中国现在需要一个像但丁这样的人出来, 从灵的文学着手, 将良心之门打开, 使人人都过着灵的生活, 使大家都拿出良心来。『靈의文学與佛教』, 앞의 책, p.446.

15) 老舍, 1999, 『老舍全集』,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第18卷, p.435.

과 같다. 35세가 되던 해 단테는 어두운 숲속을 헤매다가 표범과 사자 등의 짐승들에게 앞을 막혀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중 그 앞에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지옥과 연옥, 천국을 보여줄겠다는 제안을 한다. 아홉 개로 나뉜 지옥에서 그들은 신앙을 못 가진 자, 애욕에 사로잡힌 자, 욕심쟁이, 구두쇠와 낭비벽에 빠진 죄인, 반역자들이 고통을 겪는 참상을 목격한다. 이후 일곱 층으로 나뉜 연옥에서 그들은 거만한 자들, 질투의 죄를 범한 자들, 분노 죄를 범한 자들, 태만한 자들, 탐욕 죄를 범한 자들, 음식과 육욕을 탐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연옥을 통과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헤어져 천국으로 향한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초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레페의 강이 흐른다. 황금촛대를 선두로 신비한 행렬이 다가오는데, 천사가 꽃을 뿌리는 꽃구름 속에 베아트리카가 나타난다. 단테는 베아트리카의 안내를 받으며 10개의 하늘을 차례로 돌아본다. 베아트리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성 베르나르트의 도움으로 아베마리아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테는 신의 성스러운 얼굴을 뵈게 되고 삼위일체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지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¹⁶⁾

『신곡』에서의 단테는 어두운 숲속에서 시작하여 밝은 천국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즉, 지옥, 연옥, 천국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¹⁷⁾ 이는 『성경』에서의 원죄, 심판, 구원의 과정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단테의 세계관은 기독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곡』에서 단테는 시종

16) 단테 알리기에리, 김운찬 옮김, 2008, 『신곡』, 파주: 열린책들.

17) 지옥은 지하에 있고 그 입구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다. 연옥은 남반구 대양의 한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는 산이며, 예루살렘의 반대쪽 대척점에 있다. 천국은 아홉 개로 나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치밀하게 구상된 저승 세계를 일주일간 순례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눈다. 단테 알리기에리, 김운찬 옮김, 『신곡』, 앞의 책, pp.609-621.

일관 신이 만물의 근원이며 이 세상의 주재자라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고, 이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삼위일체의 신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라오서가 주목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행위의 결과가 신의 심판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이다. 『신곡』에서 묘사된 지옥과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들의 죄상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라오서의 뇌리에서 오버랩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밝은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라오서에게 시급한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라오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은 이미 종교적인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종교의 신비적인 색채를 벗겨내고 중국 사회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도덕과 양심의 회복, 헌신정신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V. 라오서의 문학창작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라오서의 문학창작에서 기독교 사상이 구현되고 있음을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묘성기』이다. 이 작품은 라오서가 6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리고 중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라오서의 기독교 입교를 논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1930년대 이후 라오서와 기독교의 관계를 끝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국에 머물던 라오서가 영국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도 기독교를 둘러싼 풍자적 제재의 작품을 창작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억측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라오서가 산둥(山東) 치루(齊魯)대학 교수 시절인 1932년 9월 18일, 즉 만주사변 1주년 시점에 행한 강연 「선으로 써 악을 이겨라(以善勝惡)」의 내용을 보면 당시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강연의 앞부분에서 라오서는 오늘날의 사회가 열악한 이유를 진단하면서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라고 결론지으면서, 그것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조그마한 힘으로는 개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서도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을 우리의 신앙 중심에 놓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악을 알아야만 사람들의 마음은 되 돌이킬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¹⁸⁾

이어서 라오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로마서 12장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¹⁹⁾고 결론짓고 있다.²⁰⁾ 결국 라오서는 현대 중국사회 병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들의 좋지 않은 마음에 있고,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였던 많은 지식인들의 생각과 대동소이한 것

18) 我们要想救世, 不是以小力而可改造得来的。我们非抱大决心不行。以恶不能胜恶, 以不问也不能胜恶; 只有以善才能胜恶, 以善为我们的信仰中心。如此, 人皆知恶, 人心才有挽回的希望。刘涛, 2010, 「老舍的基督教信仰与救世观及其他——从最近发现的三篇老舍佚文谈起」,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2期, p.198.

19) “罗马人书第十二章保罗说, 只要心意更新而变化, 察验何为上帝的善良, 纯全可喜悦的旨意。” 刘涛, 앞의 글, p.199.

20)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한성서공회, 2014, 『굿데이 성경전서』, 서울: 생명의 말씀사, p.256.

이다. 라오서가 이채를 띠는 것은 그 구체적 방법이나 대안을 러시아가 아닌 기독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이상적 국가이데올로기 정립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제시에서 지식인들에게 러시아는 하나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라오서는 역으로 “러시아의 건설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이지만 자유와 예술과 감정이 없다. ……정신은 오로지 물질에만 매달려 있어 부모자녀의 관계도 없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없으니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 ²¹⁾”라고 비판하면서 러시아 모델이 해결책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30년대까지도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는 라오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작품 『묘성기』 역시 그의 창작활동 전반에서 그다지 주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았지만 작가의 기독교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와 『묘성기』는 거의 동시기에 씌어졌다는 사실²²⁾을 감안하면 『묘성기』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에서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32년에 창작된 『묘성기』는 화성에 불시착한 우주선에서 생존한

21) “俄国的建设, 是理想的, 浪漫的 人没有了自由, 没有了艺术, 没有了情感。……精神全寄托在物质上, 无父母子女的关系, 无刺激情感之事, 那还有情感? 像这样, 是可羡慕的么?” 刘涛, 2010, 「老舍的基督教信仰与救世观及其他——从最近发现的三篇老舍佚文谈起」, 앞의 글, p.200.

22) 「以善勝惡」은 라오서가 치루(齊魯)의 교수 재직 시절에 행한 강연의 원고를 정리한 것으로서 1932년에 기독교 교회 간행물인 『河南中华圣公会会刊』에 실렸다. 『猫城記』는 1932년에서 1933년에 걸쳐 잡지 『현대』에 연재되었고, 1933년 8월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중국인 신문기자인 화자 '나'에 의해 묘사되는 고양이들이 사는 별, 즉 지옥과 다름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묘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묘성기』를 창작한 동기에 대해 라오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왜 이처럼 뛰어나지 못한 작품을 써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다. 우선, 나라 일에 대한 실망과 군사와 외교에서의 여러 가지 실패는, 약간의 감정은 있지만 나같이 대단한 견해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분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망에 이르게 하였다.²³⁾

라오서가 『묘성기』 창작의 외부적 요인이라 언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1931년 9월 18일에 벌어진 만주사변과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우외환을 언급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작품 창작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묘성은 중국이고, 작품 말미에 이 묘성이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에 의해 무기력하게 멸망당하는 내용을 보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까지는 동시대 여타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의 주제, 즉 반제반봉건이나 마비된 국민성 비판 등을 담아낸 것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묘성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다. 『묘성기』 21장에서 작가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23) 我为什么要写这样一本不高明的东西也有些外来的原因。头一个就是对国事的失望，军事与外交种种的失败，使一个有些感情而没有多大见解的人，象我，容易由愤恨而失望。「我怎样写『猫城记』」，老舍，1981，《老舍论创作》，上海：上海文艺出版社，p.26.

나는 조그만 샤오셰(小蝟)를 잡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말해 주십시오. 파자프스키가 뭐지요?” 나는 빠져들 것만 같았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치 이념입니다.” 샤오셰는 미혹의 잎을 먹으면서 말했다. “이런 정치 이념 하에서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즐거워하며 안전하지요. 사회는 커다란 기계가 되고 사람들은 모두 이 기계에서 일을 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일하는 못이나 작은 나사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좋은 겁니다.”²⁴⁾

여기에서 말하는 파자프스키는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주의를 말한다. 사회가 커다란 기계가 되고 그 속에서 각자의 인간은 부속품이 되어 살아갈 것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같은 시기에 썼던 「악으로 선을 이기자」는 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기계식으로 돌아가고 기계식의 즐거움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날마다 예전처럼 밥을 먹는데, 무슨 예술이 있겠는가? 정신은 온통 물질에 맡겨두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러워할만한 것인가? 그제 완전한 인생인가? 설사 즐겁다고 해도 그건 ‘취생몽사’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일반 청년들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²⁵⁾

24) 我起来的很早, 为是捉住小蝟。“告诉我, 什么是大家夫司基?” 我好像中了迷。“那便是人人为了人人活着的一种政治主义。”小蝟吃着迷吐说。“在这种政治主义之下, 人人工作, 人人快活, 人人安全, 社会是个大机器, 人人是这个大机器的一个工作者, 快乐的安全的工作着的小钉子或小齿轮。的确不坏!” 『猫城记』, 老舍, 『老舍文集』,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第7卷, p. 423.

25) 因为他们人与人的关系是机械式的活着, 机械式的快乐, 以致都是人人为了人人活着。那还有自由? 天天照例吃饭, 那还有艺术? 精神全寄托在物质上, 无父母子女的关系, 无刺激情感之事, 那还有情感? 像这样, 是可羡慕的么? 是完全人生

강연 원고인 「선으로 악을 이겨라」와 소설 『묘성기』에서 모두 라오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에서 라오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중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처방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풍조는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를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뒤쳐지는 것으로 치부될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러시아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흔하게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웃나라에 의해 망국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화자 ‘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작품의 말미 26장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인민을 이끌고 혁명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식이 없다. 이로 인해 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스스로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인민들은 어쩔가. 여러 차례 혁명을 거치면서 계급의식을 가지게 됐지만 멍청하고 무식하며 단지 속기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 아래 위가 모두 멍청하니 이것이 바로 고양이 나라의 치명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는 망국의 아픔이라는 자극이 있어도 그들이 이를 악물고 저항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²⁶⁾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던 1930년대 중국에 대한 작가의 냉혹한

么? 纵然是快乐, 那也是“醉生梦死”的快乐, 而一般青年却注意于此, 岂不是糊涂? 刘涛, 앞의 글, p.200.

26) 有点聪明的想指导着人民去革命, 而没有建设所必需的知识, 于是因要解决政治经济问题而自己被问题给裹在旋风里; 人民呢经过多少次革命, 有了阶级意识而愚笨无知, 只知道受了骗而一点办法没有。上下糊涂, 一齐糊涂, 这就是猫国的致命伤! 带着这个伤的, 就是有亡国之痛的刺激也不会使他们咬着牙立起来抵抗一下的。『猫城记』, 앞의 책, p.427.

진단이다. 『묘성기』에서 라오서의 시야는 더 멀리 닿아 있다. 즉, 당대 중국의 현실적 모순과 시대 조류의 부정적 흐름을 우화의 형태로 비판하던 작가는 작품 말미에서 비판의 화살을 좀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겨눈다.

묘성을 한 번 보고 내 마음 속에서 ‘이 문명은 곧 멸절되겠구나.’라는 한마디가 왜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문명은 민족과 더불어 멸절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의 역사기록도 모두 장밋빛은 아니다. 역사를 읽고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면, 눈앞에 숨이 끊어져가는 문명이 펼쳐져 있다 한들 상심할 일이겠는가!²⁷⁾

라오서는 『묘성기』를 단테의 지옥 여행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²⁸⁾ 5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라오서에게 비친 조국의 문명은 곧 멸절될 것으로 비칠 만큼 절망적이었다.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했던 지옥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라오서는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멸절될 위기에 처한 중국 문명의 위기를 종교적 가르침으로 치환하여 묘사한다.

곧 죽을 사람에게도 되비취질 빛이 있는 것처럼, 곧 목숨이 끊어질 문명이라도 시끌벅적함이 없으란 법은 없다. 한 문명의 멸망은 한 사람의 죽음에 비해 더욱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창조의 과정에 이미 저 괴멸의 손가락이 문명의 머리에 놓여 저 선한 사람—곧 죽을 나라도 몇 명의 선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고양이 나라

27) 一眼看見貓城，不知道爲什麼我心中形成了一句話，這個文明快要滅絕……文明與民族是可以滅絕的。我們地球上人類史中的記載也不都是玫瑰色的。讀歷史設若能使我們落漏，那麼眼前擺着一片要斷氣的文明，是何等傷心的事。『貓城記』， 앞의 책, p.358.

28) “『貓城記』是但丁的游地獄” 老舍, 「我怎樣寫離婚」, 앞의 책, p.31

는 시끌벅적하다. 이 시끌벅적한 풍경 속에서 그 휘멸의 손가락을 본다. 사람들의 피부와 살갗을 막 벗겨내려고 하고 이 고양이 나라가 백골의 무덤이 되는 모습이 보였다.²⁹⁾

멸망 직전의 시끌벅적함, 멸망 대상을 거론함에 있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비 등이 묘사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³⁰⁾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휘멸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다.

이 밖에도 ‘휘멸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묘성기』 곳곳에서 등장한다. “나는 또 그 휘멸의 손가락이 이 고양이 나라의 희망을 누르는 것을 본다.”³¹⁾라든가 “햇바닥은 마치 괴멸의 손가락에 의해 눌러진 것 같아서 이 사람과 나라는 영원히 다시금 소리를 내도록 허락받지 못했다”³²⁾라는 묘사에서처럼 『묘성기』 전체를 관통하는 지옥과 다름없는 중국문명의 심판 이미지로 작동한다. 일본 연구자 쿠사가 츠네오(日下恒夫)는 이 ‘휘멸의 손가락’출처를 『성경』에서 찾는다. 그는 “이 손가락

29) 将快死去的人还有个回光返照，将快寿终的文明不必是全无喧嚣热闹的。一个文明的灭绝是比一个人的死亡更不自觉的；好似是创造之程已把那毁灭的手指按在文明的头上，好的——就是将死的国中总也有几个好人罢——……猫国是热闹的，在这热闹景象中我看见那毁灭的手指，似乎将要剥尽人们的皮肉，使这猫城成个白骨的堆积场。『猫城记』， 앞의 책， p.411.

30) 사해 자리에 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은 매우 게을렀고, 온갖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살인자를 법정에서 세우지도 않았다. 또한 두 도시 모두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였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웃어넘겼고, 인근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 이 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19장 38절까지 걸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대한성서공회, 2014, 『굿데이 성경전서』, 서울: 생명의 말씀사.

31) “我又看見了那毀滅的巨指按在這樣貓國的希望上...” 『猫城记』， 앞의 책， p.393.

32) “舌似乎被毀滅的指給捏住，從此人與國永不許再出聲了” 『猫城记』， 앞의 책， p.461.

은 멸절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손가락은 멸절의 전조로써 예언을 드러냈다고보다는 하나님을 비방한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고 최후의 심판을 내린 것이다. ……작가는 궤멸의 손가락이라는 말로 자신의 소설을 창작하는 중심단어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묘성기』의 깊은 곳에 흐르는 사상은 성경식의 사유방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³⁾

쿠사카 츠네오가 『묘성기』에 흐르는 사상이 성경식의 사유방식이라고 한 이유는 구약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손가락 고사에서 비롯된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족 일천 명을 모아놓고 자신의 아버지 느브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으로 주연을 베풀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나타나 글자를 새기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놀란 왕이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게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조각 조각내어 페르시아와 메대에 넘긴다는 것이었다. 당일 밤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하수구를 통해 기습 공격하여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바벨론 왕은 죽임을 당한다.³⁴⁾

결국 『다니엘서』에서의 손가락은 방종한 사람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을 의미한다. 라오서가 『묘성기』에서 이 손가락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은 중국 문명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크리스천 라오서의 절박한 심정과 함께 현실적 거약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작가적 노력의 결과

33) 這個手指是一個滅絕的象徵，但這個手指與其說作為一個滅絕的前兆揭示了一個豫言。不如說是上帝給與誹謗上帝的人的懲罰和最後的審判……他把這一段故事縮約成毀滅的手指五個字，用自己小說裏的中心詞語，便可以說，流淌在貓城記這個作品深處的思想是聖經式的思考方法，日下恒夫，1986，「老舍与西洋——从『猫城记』谈起」，『復旦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期，p.38.

34) 『굿데이 성경전서』, 앞의 책, p.1240-1242.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묘성기』를 통해 선을 신앙의 중심에 놓고 악에 대항하여 승리하려는 작가의 종교적 믿음과 소망이 문학적으로 잘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묘성기』에서의 비극적 결말 속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구원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는 다잉(大鷹)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현된다. 이 인물은 앞에서 인용된 ‘곧 죽을 나라에도 몇 명은 있다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다.

『묘성기』 전체를 통해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 샤오세(小蝸)와 다잉(大鷹)이다. 절망적 상황에 빠진 고양이 나라에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던 ‘나’는 먼저 고양이 나라 권력자의 샤오세의 아들인 샤오세를 찾는다. 샤오세는 고양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나’에게 속속들이 알려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용기 부족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 살아가는 전형적인 소부르주아이다. 대응의 정신적 추종자이기도 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다잉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묘성기』 창작 당시 작가 라오서가 내면적으로 동일시했던 것은 샤오세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국정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미약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지 못하는, 애국주의와 비관주의가 착종되어 있는 지식인의 슬픈 자화상이 바로 샤오세요 작가였던 것이다.

샤오세의 고양이 나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접한 ‘나’는 조그마한 희망을 붙잡고자 다잉을 찾아간다. 다잉은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인한 문명 멸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마비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아무런 좋은 점도 없어요. 적들의 숫자는 많고 장비도 좋지요. 우리 나라 전체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도 이기리란 보장이 없어요. 하지

만 만일 우리 두 사람이 벌인 일이 약간이나마 영향이 있다면, 고양이 나라로서는 일대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저항하지도 못하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 두 사람은 만일 다른 좋은 점이 없다면 최소한 적들에게 약간이라도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고양이 나라는 망하는 거고, 우리 두 사람은 죽는 거죠. 이른바 희생도 없고, 영광도 없이, 살아서는 망국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죽어서는 망국노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은 생명보다 큰 건데 말이지요. 이 뿐입니다. 다시 봅시다. 지구선생.³⁵⁾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고양이 나라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샤오세와 함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에 대해 그런 행동이 무슨 좋은 점이 있냐는 ‘나’의 질문에 대한 다잉의 대답이다.

작가가 다잉에 대해 “모든 고양이사람(猫人)들을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희생자요 교주였다.”³⁶⁾고 한 것은 작품에서 그의 모습은 선지자요 순교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뒷받침해준다. 다잉의 순교자적인 죽음은 『묘성기』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절망적 상황을 구원해주는 역할, 즉 선으로써 악을 이기는 결말을 기대하게 했지만 결과는 더욱 절망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머리는 효수가 되고 ‘머리 보러 가자’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로 온 성은 아수

35) 一點好处也沒有。敌人的兵多，器械好，出我们全国的力量也未必战胜。可是，万一我们俩的工作有些影响呢，也许就是猫国的一大转机。敌人是已经料到，我们决不敢，也不肯，抵抗；我们俩，假如没有别的好处，至少给敌人这种轻视我们一些惩戒。假如没人响应我们呢，那就很简单了：猫国该亡，我们俩该死，无所谓牺牲，无所谓光荣，活着没作亡国的事，死了免作亡国奴，良心是大于生命的，如是而已。再见，地球先生。『猫城記』，앞의 책，p.442.

36) “而是个替一切猫人雪耻的牺牲者，他是个教主”『猫城記』，앞의 책，p.443.

라장이 되는 것이다. 이 장면은 루쉰(魯迅)의 단편소설 『약(藥)』에서 혁명이 샤위(夏瑜)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

다잉의 순교자적인 희생정신이 발휘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꿈꾸었던 이들에게 다잉이 염려했던 것처럼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도래했고, 더 나아가 숭고한 그의 죽음이 희화화되는 더욱 더 절망적 상황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지옥과 연옥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단테식 전개와는 다른 라오서 방식의 전개, 즉 ‘훼멸의 손가락’을 통한 온갖 악에 대한 철저한 응징은 암울한 중국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서는 『묘성기』에서 ‘훼멸의 손가락’을 통해 심판을, 희생자요 교주인 다잉을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1930년대라는 암울한 중국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편으로써 기독교 사상의 핵심 주제인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작품에 담아낸 것이다.

V. 맺음말

5년간의 영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라오서 앞에 펼쳐진 중국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했다. 안으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민생의 파탄, 정치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만주를 시작으로 대륙침략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명망 있는 지식인과 정치가들 수많은 정책들이 난무하였지만 위기에 빠진 중국의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이미 세례를 받았고, 적지 않은 기독교 관련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사상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던 라오서의 영국행은 이후 라오서의 창작에 기독교 사상의 영향이 깊숙이 자리하는 데 결정적 향을 미쳤다.

영국 체류 기간 동안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양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라오서의 이해가 얼마나 넓어졌을지는 불문가지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라오서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공표하였고, 귀국 후 첫 작품인 『묘성기』를 통해 조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감개를 피력하면서 기독교적 사상을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글을 통해서도 자신의 기독교적 시각과 입장을 밝혔다.

라오서가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은 『묘성기』 외에도 그가 창작한 유명세를 떨친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의 직간접적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를 중국현대문학 대표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낙타상자(駱駝祥子)』에서 비 내리는 장면을 “비는 부자에게도 내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내린다. 의로운 이에게도 내리고 의롭지 못한 이에게도 내린다.”³⁷⁾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는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³⁸⁾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당대 조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의 문제의식은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되지 않았고, 그 효과 또한 미미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 중국 수립 이후 모든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치 격랑 속으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그의 문제의식은 빨려 들어가 포말처럼 사라진 듯 했지만 그의 창작 곳곳에는 미미하나마 그 빛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37) “雨下給富人, 也下給窮人; 下給義人, 也下給不義的人”, 『老舍文集』(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5) 第3卷, p.170

38) 대한성서공회, 『굿데이 성경전서』, 앞의 책, p.7

참고문헌

- 김학관, 2005, 『중국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 단테 알리기에리, 김운찬 옮김, 2008. 『신곡』, 파주: 열린책들.
- 대한성서공회, 2014, 『굿데이 성경전서』, 서울: 생명의 말씀사.
- 甘海嵐, 1989, 『老舍年譜』,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 老舍, 1995, 『老舍文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老舍, 1999, 『老舍全集』,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 老舍, 1981, 『老舍論創作』,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劉寧, 2016, 「淺析英國生活對老舍早期創作的影響」, 『課程教育研究』, 第5期, pp.238-239.
- 劉壽, 2010, 「老舍的基督教信仰與救世觀及其他: 从最近發現的三篇老舍佚文談起」,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2期, pp.197-204.
- 馬新亞, 2008, 『基督教與老舍』,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日下恒夫, 1986, 「老舍与西洋——从『猫城记』谈起」, 『復旦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 pp.36-39.
- 吴永平, 2003, 「老舍与基督教“本色化”运动」,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23卷 第3期, pp.39-43.
- 徐愛紅, 2005, 『老舍的文學創作與基督教』, 青島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桂興·鄭金麗, 2000, 「老舍與基督教的不解之緣」,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2期, pp.62-65.
- 張文森, 2011, 『老舍與基督教』,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The Influence of Christian Thought on Lao She's Literature

Shin Jin Ho(Myongji University)

Abstract

During the period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in the early 1900s, Chinese intellectuals sought to find a prescription to put the country's future in the right direction. Some sought the solution of socialism, others interested in bourgeois democracy. There were also attempts by those who tried to open the nation's future by developing education or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time was to seek the prescription from religions, especially Christianity. At the heart of this paper is how Christian ideas, which LAO-She had encountered during his youth, emerged from his literature, literature theory and literature creation. First, he looked at the process in which he came into contact with Christianity throughout his lifetime, and then at the things that revealed Christian ideas in his writings. Among the many works he announced, he focused on the A Tale of cat city which was judged to have a Christian view well expressed, through which he left the ` dedication of mind to abandon himself ` and engaged in literature activities by his country.

The problem of how to deal with the many problems China faced at the time was not accept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and its effects were minimal. But in itself, it is not pointless. His sense of problem based on Christian thou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hina may have been sucked into the political chaos that drew all the problems into black holes,

and disappeared like foam,

Key Words

Christianity, LAO She, A Tale of cat city, Bible, patriotism

